



언어와 문화, 피부색이 다른 것도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진실한 마음 하나로 묵묵히 걸어왔다. 7년째 다문화 한 부모 가정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정종원, 김성은 부부의 이야기다.

편견을 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다

다문화 한 부모 가정 돕는 정종원, 김성은 부부



그들만의 작지만 특별한 이벤트, 레스토랑으로의 식사 초대

다문화 한 부모 가정에 관심을 갖고 다가서기 시작한 것은 아내 김성은(33) 씨다. 2007년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그는 다문화 가정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줄 자원봉사대를 조직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이혼하고 낯선 땅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사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 여성이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비해 다문화 한 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개인적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주말에 시간을 내어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고 엄마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모임에 남편 정종원(38) 씨도 참여하면서 현재 이들이 지원하는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은 10여 가정, 40~50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부부는 하루에 천 원씩 모아 매년 결혼기념일에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을 초대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

게했다. 어려운 살림에 레스토랑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모처럼 즐겁고 여유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엄마와 아이들이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2014년부터는 결혼기념일에 식사 대신 1박 2일 캠프를 열고 있다.

“1박 2일 캠프를 통해 엄마와 아이들이 서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은 그간 못 나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밀감을 느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동질감이 엄마와 아이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 김성은 씨가 엄마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 정종원 씨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놀아준다. 그런 그의 노력에 화답하듯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정종원 씨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고민 상담을 청한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비해 한 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종원(좌), 김성은(우) 부부는 이러한 한 부모 가정을 위해 손길을 내밀고 있다.



부부가 올해 3월 만든 비영리단체 '프레밀리(Framily)'는 친구와 가족의 합성어로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가족, 가족 같은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님은 부부

부부 모두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다문화 한 부모 가정 모임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꿈꾸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사연이 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정종원, 김성은 부부는 가수 선과 정혜영 부부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이들에게 김성은 씨 어머니가 선, 정혜영 부부가 무료 결혼식을 올려준다는 기사를 보고 알려준 덕에 김성은 씨가 직접 자신들의 사연을 보낸 것이다.

“우리 부부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더 어려운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김성은 씨는 다문화 한 부모 가정 모임을 비롯해서 평소 육아와 살림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남편이 고맙고, 정종원 씨는 깊은 관심으로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아내가 대견하다. 살면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데, 이들 부부 역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과 따뜻하게 웃는 미소가 닮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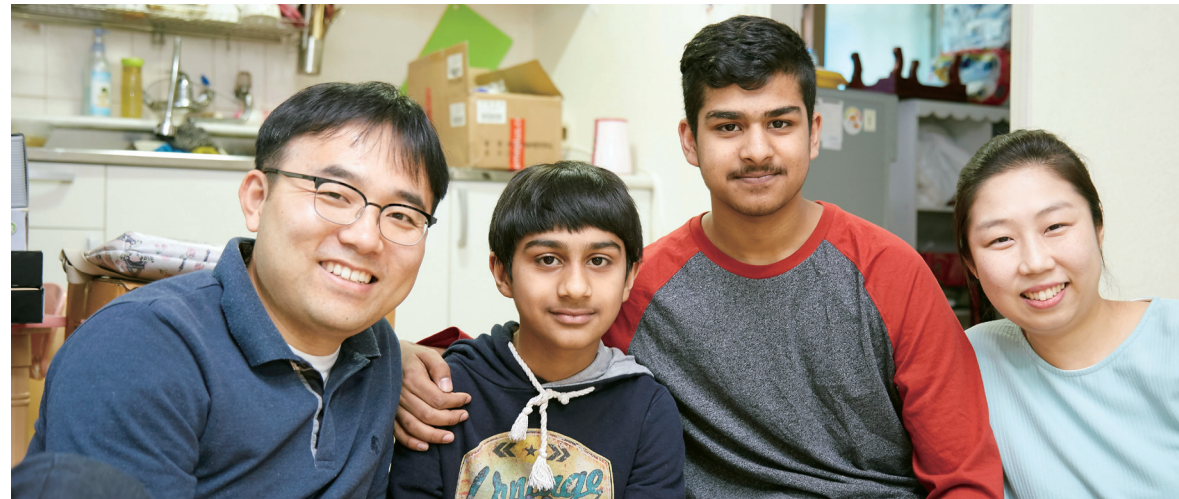
“제 두 아이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큰 아이만 모임에 데려가는데 조금 더 자라면 작은 아이까지 데리고 다닐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경험한대로 편견 없이 세상을 살아 가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로, 소외된 이웃의 친구로 사는 김성은 씨의 또 다른 이름은 엄마. 자신의 아이들이 편견 없이 자라길 바라는 그의 소망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답다.

정종원, 김성은 부부는 올해 3월 ‘프레밀리(Framily)’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 친구와 가족의 합성어로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가족’, ‘가족 같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저녁식사가 캠프가 되면서 지인들에게 받는 경제적 도움이 컸어요.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인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었고요.”

‘프레밀리’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보다 거창하거나 큰 사업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다문화 한 부모 가정 안팎에서의 관계 회복이다.



부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 모임에 참석한 부부.

‘프레밀리’로 친구 같은 가족, 가족 같은 친구를 꿈꾸다

“엄마와 아이들 간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홀로 아이도 키우고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처지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 부담감이 자연히 아이에게 전달되어 엄마와 아이들 사이가 멀어진 가정도 적지 않지요. 기댈 곳 없는 이들 가정에 가족 같은 친구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10여 년 동안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접하고 있는 김성은 씨는 또 다른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대부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혼했다고 해도 문제가 계속되기도 해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의 경우 일일이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터라 걱정도 되고 늘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고자 정종원, 김성은 부부는 국적별로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주민 여성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60대 장년층이 이주민 여성의 멘토가 되는 ‘다모아 돌보미’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한 다문화 한 부모 가정 모임에 참석한 한 이주민 여성은 “정종원, 김성은 부부를 비롯해 모임을 통해 만난 이웃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을 평범한 이웃처럼 대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하는 일이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날을 고대해봅니다. 기댈 곳 없는 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은 누구보다 소외된 계층이다.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감싸 안는 것이다. 때론 친구처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론 가족처럼 아픈 상처를 보듬는 정종원, 김성은 부부의 나눔처럼 따뜻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많아지길 고대해 본다.

다문화위기가정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소외된 다문화위기가정의 엄마와 아이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사랑은 든든한 힘이 됩니다. 외롭고 아픈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 기다립니다. 재정, 결연, 물품을 통한 후원과 사업후원, 자원봉사 등으로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83-791004(예금주 : 프레임리)

후원문의 : 070-7655-1177

블로그 : <http://blog.naver.com/framily2016>